

이 19장은 법화경을 기억하고 [受持], 읽어서 주고 [讀], 외워서 들려주고 [誦], 해설해주고 [解說], 문자화하여 남에게 전해주는 [寫] 수행을 하는 다섯 가지 법사의 공덕을 설한 조각(品)인데, 법본에서는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즉 법사공덕(法師功德)이란 법사가 얻는 공덕이라는 뜻이다. '법사(法師)'란, <법화경>에서는 출가 스님에만 국한되지 않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 모두를 뜻하는 말이다. 재가자라도 좋고 남자인 여자인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여 남에게 설해 세상에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법사(dhammabhanaka)라고 불렀다. 그들은 설법자이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청중에게 경전을 설해 들려주는 사람이었다.

앞의 '제10장 법사품'에서 법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했는가 하면, <법화경>의 한 시구라도 이를 기억하고 읽어서 주고 외워서 들려주며 해설해주고 문자화하여 전해주는 경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즉 우선 가르침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굳게 기억하며 다음에 더욱 깊이 경전을 읽고 그것을 외워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를 위한 행이라 하겠으나 아무런 신앙으로서의 기초를 자기 몸에게 구축하기 위한 행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신앙이 진보하면 자연히 남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진리의 외향성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맡아주고 문자화한 경전이 없는 경우에는 외워서 들려주고 그리고 경전을 해설

해주고 또 문자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행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경전에 꽃이나 향 내지 경전을 읽어서 주고 외워서 들려주고 문자화해서 전해주는 사람에게 외복이나 기약(伎樂) 등의 일 가지의 공양을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법사라고 설해져 있다. 그 중에서도 수지,

읽어주고 [讀] 외워주는 [誦] 것으로 나누어서 도합 다섯 가지로 하기 때문이다. 법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수지(受持): 경전을 받아들여 믿어 마음 속에 굳게 간직하고 잊지 않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을 말하고, (2)독(讀): 경전을 입으로 소리 내어 크게 읽어주는 것을 말하며,

사람을 법사라고 하며 그 법사가 다섯 가지의 수행을 실천함에 의해서 얻는 공덕을 설하려는 것이 이 '법사공덕품'의 내용이다. 이것이 다음에 말하는 6근 청정(六根清淨)이다.

그런데 종래에는 한자(漢字)의 해석에 급급하여 받들어 간직하고 [受持], 읽고 [讀], 외우고 [誦], 해설하고 [解說] 베껴 쓰는 것 [寫]에 대해 수지와 독, 송, 서사는 자기를 위한 것, 즉 자기(自利)라 하고 해설만을 타리(他利)라고 하였다.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은 상구보리한 연후에 하화중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으므로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마치 시간적으로 선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법화경>의 원문이 <사다르마팔리어 사담마 폰다리카 수트라>인데 '폰다리카'는 연꽃을 말하므로 <신비한 진리를 연꽃에 비유한 가르침>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연꽃이라는 말이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고 맺는다(華果同時)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하화중생을 하면 동시에 상구보리가 된다는 말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바로 '사다르마[法]'인데 이 말을 곧 객관적으로는 진리라는 말이며 이 진리를 부처님께서 주관화한 것이 부처님의 지혜 [佛智]이다. 이 부처님이 얻은 지혜의 작용이 자비이며 자비란 바로 이타행을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이타행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의 <법화경> 실천행을 말하므로, 법본에는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경스님의 경전 읽기

법화경 ⑩ 법사공덕품 제19

다섯가지 법사



수지·독·송·해설·서사하는 수행자 적극적인 자리아타 실천이 보살도

독, 송, 해설, 서사라고 하는 경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래의 대행자(代行者)이며 여래의 어깨 위에 실려진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은 여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 '법사공덕품'에서 말하는 법사도 이 경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경전 수행자를 후세에 '5종 법사'라고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가운데 경전을

③송(誦): 경전이 없는 경우에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외워서 들려주는 것이고, ④해설(解說): 다른 사람에게 경전을 해설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⑤서사(寫): 경전이 없는 경우에는 <법화경>을 문자화하거나 또는 경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베껴 쓰거나 남을 시켜 베껴 써서 남에게 전해주어 후세에 넓히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다섯 가지의 경전 수행을 실천하는

오직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니,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져도 안고, 삼도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 하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러하냐? 거리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서 뗏대 가리웠다가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에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는 수고만 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그대들이 남에게서 부지런히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30이승지경이 지나더라도 또다시 생사로 돌아갈 것이니, 일 없이 절에서 가부좌하고 앉 아있는 것이 더 좋다.



요컨대 거리길 일은 모양(相)을 좇아다 니며 모양에 구속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스스로 모양을 좇아다 니지 않고 모양에서 벗어나려면 거리길 상대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부란 모양을 좇아다니지 않고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모양을 좇아다니지 않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③6

그대로 두는 정직한 결단

솔직 담백하게 꾸밈없이 모든 일음일미를 포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즉시 바로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는 또 하나의 길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엄밀하고 정확하게 찾아보는 것이다. 즉 스치며 지나가는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다양한 물결을 이루어 냈물이 흘러 지나갈 때, 그 흐름 속에서 몸을 감지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흔들리는 물결은 곧 물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의식 속에서 온갖 생각과 느낌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 온 힘을 기울여,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느낌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변함없이 만들어 주고 유지시켜 주는 흐름 그 자체를 경험해 보라. 흐름은 흘러갈 뿐이다. 언제나 흘러갈 뿐이지만 변함없이 이 자리에 있다. 이름과 뜻은 변화무쌍한 허깨비일 뿐이고, 이 흐름이 아발로 진실로 이름도 모양도 뜻도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변함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유일한 것이다.

다만 흐름이란 이름과 뜻을 가지고 흐름 그 자체를 본다는 착각은 삼가하라. 생각과 느낌의 흐름 속에서 그냥 흐름 그 자체로만 있어 보라. 무슨 일이 경험되는가?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회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정화) http://www.mindfree.net/

생각·느낌의 흐름 자체를 경험해 보라

고 모양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면 된다.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게 할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는 단호하고 정직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름과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며, 이름과 뜻으로 이해하는 일을 단호하고 정직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참으로

허망한 이름과 뜻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변함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단, 이 변함없는 것은 이름과 뜻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 변함없이 나타나는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이름과 뜻이 아니라, 이름과 뜻이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속에서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24)

장수와 보시

최근 세계적인 팝 스타인 마돈나(43)가 그녀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팬들에게 내면적 불안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들은 나의 전부가 아니며 지속되지도 않는다. 때때로 회의를 갖고 낙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그녀는 "힘들 때 나를 버리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베풀기"라면서 우울하거나 수렁에 빠진 기분이 들 때는 "친절을 베풀라"고 조언했다.

이런 도움을 주는 행위의 효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 미시간 대학 사회연구소의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학 전문지인 <심리과학> 최신호에서,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 높다고 보고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

로써 베푸는 재시(財施)와 즉 진리(眞)가 세존의 깨달은 배를 가르쳐 주는 법시(法施), 두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무의시(無畏施)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요새 보시란 말은 불공이나 불사(佛事)를 할 때 불공신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며 금전이나 물품을 내놓는 일이라는 좁은 의미로 거의 변질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지금 처한 위치에서 전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만을 통해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하며 신세를 한탄하곤 한다. 그러나 찬찬히 따져보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 즉 누구나 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방항성의 보시는 재고되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하루의 도움만 받으면 충분한 사람

남 위해 베푸는 사람이 오래살아 자립적 삶 기반 닦는 것이 중요

위를 하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긴 것도 노후에 남을 돕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지금까지의 통설을 뒤집었다.

관련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 보살이 수행하는 여섯 가지 덕목인 육바라밀(六波羅蜜)이 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바라밀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 덕목인 보시 바라밀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본래 보시란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행위를 뜻하며, 재물

에게는 하루의 양식을 나누어주면 그만이지만 한 평생을 도와야 할 사람에게는 능력에 맞게 스스로 양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불교계의 자선단체들은 서양의 자선단체들처럼 기부금 모금에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시급한 구호 사업과 병행해 백장(百丈) 선사(禪師)의 선농일치(禪農一致) 정신을 본받아,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함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신체 열등한 계층의 경우에는 삶의 참 뜻을 바르게 새기며 스스로 점차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욱 애써야 할 때라 판단된다.

서강대 물리학과 yipark@ccs.sogang.ac.kr



그림 · 문병성

불교 국내 최다 진신사리 친견

모시는 말씀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한번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진솔(眞率)하게 참회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종족, 사상, 이념, 종교, 문화, 환경,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지구촌 전인류가 세계화로, 아니 한 가족이 되어 국경, 여권, VISA가 없이 오대양, 육대주를 마음대로 순유(巡遊) 할수있는 융화세계(龍華世界)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월드컵 경기때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소리치던 붉은 악마로 변한 우리 국민의 그 무서운 잠재력이 다시 분출되어 학연, 혈연, 지연을 초탈(超脫)한 머슴이 뽐히고 융화세계의 발상지가 되고 역사와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임을 보여줄 참다운 진아(眞我)를 찾는데 평생의 결정체인 진신사리(眞身舍利)를 친견하시고 소원성취(所願成就) 이루시기를 합장하여 비읍니다.

불기 2002년 11월 동명사 사문 합장

사리함 진신사리 사리함

찾아오시는 길 ↓

서울 강동구 암사 1동 460-15호 상원빌딩 5층

◎ 진신사리 친견 : 불기 2546년 11월 30일 부터~

◎ 동명문의 : 02-442-0962 / 02-442-9358

※ 사문(沙門)과 인류(人類)를 위하여 대작 불사(大作佛事)를 함께 하실 신심이 돈독하고 능력이 있으신 회장님을 찾습니다.